

#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김인숙(金仁淑)\*\*

김도연(金到妍)\*\*\*

##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전 아동의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과의 관계 및 매개변인과의 구조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와 수도권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개인 의원을 방문하는 학령전 아동의 어머니 543명과 그 자녀인 학령전 아동이며, 경로분석을 통해 학령전 아동의 어머니와 그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및 매개변수의 인과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즉, 독립변인으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을, 종속 변인으로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설정하였고,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부갈등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모형에 대한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부부갈등에 정적영향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대해 부부갈등은 정적으로,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쳐 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부부갈등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시사하고,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부부갈등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어머니, 아동,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과몰입

\* 본 연구는 2015년 김인숙의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부부갈등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를 수정 및 요약한 것임.

\*\* 용문상담심리대학원 대학교 박사과정 수업 중

\*\*\* 용문상담심리대학원 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I. 서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14년 9월을 기점으로 국내 가입자가 4천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5년 1월엔 전월 대비 27만 명이 늘어 4083만 명으로 증가했다(미래창조과학부, 2015). 2017년 3월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 보고에서 이동전화가 62,028,407 회선 수에 달한다고 보고했다(미래창조과학부, 2017). 이와 같이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며, 기본적인 통화 수단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여 정보 검색, 교육, 게임, 교통, 금융, 모바일, 오피스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상연 외, 2011). 또한 기존의 휴대폰의 기능과 차별된 트위터와 페이스 북으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의 매력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강주연, 2012). 이렇듯 스마트 폰의 사용이 일상화 되는 중, 디지털 기기의 범람으로 공감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후천적 디지털 자폐증'(한겨레신문, 2014.05.19)과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사이버 불링'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따돌림 같은 사이버 폭력(한겨레신문, 2015.11.09)과 디지털 기기의 도움 없이는 단 몇 분의 일상생활도 힘들어 하는 '디지털 치매'(매일경제, 2015.10.16) 등 다양한 현상들이 보도된 바 있다. 이나미(2014)는 한 공간에 있지만 상호작용 없이 각자 아이패드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자라면서 실제 대인관계에서는 자기표현을 잘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감정을 수용하지 못하여 타인과 직접 대면하여 감정을 읽는 능력이 퇴화될 것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만 3~69세 스마트폰 이용자 2만4386명(1만 가구)을 대상으로 2016년 인터넷(스마트폰) 과 의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중독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만 3~9세 유아동의 경우 고위험군은 전년보다 0.5% 감소한 1.2%, 잠재적 위험군은 지난해보다 6% 증가한 16.7%이며 또 부모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경우 유아동 자녀가 위험 군에 속하는 비율이 23.5%, 청소년 자녀가 위험 군에 속하는 비율은 36%라고 했다(동아일보.2017.01.23).

한편, 학령전 아동기는 어머니와의 애착과 신뢰감을 형성하여 사회성 발달의 기본이 되며, 신체 발달과 더불어 정서, 운동기능 등이 급격하게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어머니는 아동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최초의 양육 환경이며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때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즉 어머니의 반응성이나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David J. Wallin(2010), 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는 어머니는 아동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 안정애착을 형성하기 어려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Bowlby나 Ainsworth 등의 애착이론의 측면에서 중독은 몰두하는 대상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고통스러운 욕구이며, 물질남용 및 약물의존 등의 중독 현상은 사회적 애착관계를 통해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자연적 보상(nature reward)을 대치하려는 시도라고도 하였다(Maclean,1990). 또

한 이경옥(2005)은 언어 및 인지, 정서, 사회성과 같은 아동의 주요 능력은 외부 대상과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데, 사용자에게 자극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폰의 특성 때문에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양육자와의 안정적 애착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성 지수도 낮다고 보고하였다. 박소영(2015)의 연구에서도 부모는 유아에게 스마트 기기를 처음 접하게 하며 기기 사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스마트 미디어를 함께 사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과다사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머니의 스마트 미디어 중독, 양육 스트레스, 양육행동 중 과보호·허용, 유아의 기질에서 수줍음, 사회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어머니는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환경을 결정하고 아동의 다양한 역할의 모델링이 되므로 어머니가 지나치게 스마트폰에 몰입하게 되면 아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아동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 정서 행동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스마트 미디어 과다 사용이 얼마나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의 영향

스마트폰의 사용이 급증하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물질남용에 적용되던 개념인 중독이 행위중독(behavioral addiction)으로 확장되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용어가 ‘스마트폰 과다사용’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Goldberg(1995)가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DSM-IV의 물질중독에 근거해 돌출 행동(salience), 기분 변화(mood modification), 내성(tolerance), 금단증상(withdrawal symptoms), 갈등(conflict), 재발(relapse)을 포함하여 개념 정의를 내린 바 있다. 강경두(2013)는 특정한 행위의 과도한 반복은 물질중독과 마찬가지로 갈망, 내성, 금단, 대인 관계 및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고하였다. 즉,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은 같은 기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데, 10명의 인터넷 게임 중독자의 뇌를 MRI로 찍었을 때 알코올 중독자가 갈망 상태에 있을 때 반응하는 부위와 거의 동일한 부위에서 반응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통계청(2010)의 실태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24.4%는 스마트폰 인터넷을 과다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스마트폰 중독 진단 결과 고위험 사용자 및 잠재적 위험 사용자로 분류되는 스마트폰 중독자는 1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많은 연구들이 스마트폰 중독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김지혜

(2013)는 남성들이 게임 등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인정과 다른 사람과의 감정 공유를 중요시하는 여성들은 메시지와 카톡 등으로 채팅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블로그를 꾸미는 기능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박용민(2011)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폭넓은 인맥 형성을 위해 카카오톡 등의 SNS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등 여성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머니의 성격 특성과 행동 습관 및 태도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스마트폰은 '마법의 보육 도구'로 영유아들에게 노출되어 자연히 0~3세 영유아도 스마트폰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한겨레신문, 2014.01.02). 터치스크린은 두세 살 영아도 쉽게 사용 가능하며, 크기가 작고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과 흥미롭고 다양한 콘텐츠 등을 탑재하여 유아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유아들의 사용 또한 증가하고 있다(유구중, 2012).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실태 조사에서 주 양육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동은 스마트폰에 일찍 노출되고 스마트폰 사용시간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 5세를 대상으로 한 방효국(2013)의 연구에서는 유아가 스마트폰 게임을 할 때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소유자는 어머니의 것이 59.8%, 게임을 함께하는 사람은 순위 형제가 46.0%로 나타났다. 게임 시작 연령도 점차 하향화하여 '만 4~5세 시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만 3세 시작'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조준오, 강신영, 2008). 스마트폰 성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타 응답자 대비 '25~29세', '30~34세', '여성'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박용민, 2011), 이는 가임기 여성들로 잠재적 혹은 실제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아동을 양육 중인 어머니는 활동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 공간적 활용이 자유로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나용선(2013)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이용시간이 길어지면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 발표에서도 약 70%에 이르는 영·유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아의 이용시간이 유아보다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만 5세 유아의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처음 접하는 시기는 생후 1년 이내(68.2%)이며, 하루 평균 게임 이용시간은 대부분의 유아가 30분 미만(67.4%)이지만, 1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경우도 8.3%에 이른다고 보고했다(방효국, 2013). 가정에서의 유아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한 연구(임선영, 2013; 이원석과 성영화, 2012; 유은정, 2014)에서는 스마트폰의 사용 빈도는 일주일에 1~2회(42.5%), 1회 평균 시간은 30분 이내(59.5%)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이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사한 이유는 1회 사용이 30분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사용한 군은 스마트폰 중독의 잠재적 위험 군으로 분류되어 예방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방효국, 2013; 정아란, 2007).

## 2.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 현상

신의진(2013)은 디지털 기기는 모든 활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깨달음을 수반하는 경험적 지혜보다는 이론적 지식에 머물게 하여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가짜 성숙'이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자기 통제력이나 절제력이 부족한 아동이 스마트폰 중독에 더 쉽게 빠지고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유아가 컴퓨터 게임의 흥미와 즐거움에 빠진다 해도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성인의 중독현상과는 다르며(정아란, 엄기영, 2006), 유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어렵고, 발달 과정 속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중독으로 진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김승옥, 이경옥, 2007). 이에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의한 폐해를 살펴보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중독'보다는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는데, 이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상태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즉 어떤 행동을 할 때 외부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인 몰입이라는 용어를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현재 가장 긍정적이고 최적의 경험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로 정의를 내렸다(송봉, 이종호, 정병무, 2014).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와 더불어 부정적인 면을 보면 몰입의 정도가 과도하여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일상생활 등 여러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과몰입'으로 정의하였다(김승옥 외, 2007). 이처럼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통해 몰입에서 중독으로 진행되는 연속선상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몰입의 긍정적 인 측면과 중독이라는 부정적 측면 사이에 위치한 특성으로 정의 내렸다(채유경, 2006).

## 3.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에서 부모가 개방이나 감정이입, 지지, 긍정 등의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인 경청을 하려는 노력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동의 의사소통에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상으로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사회성 및 안정성, 도덕성 발달, 스트레스 인지 및 적응 수준 등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발달 전반에 걸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정화, 2008). 이서현(2012)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촉진적인 의사소통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대인 적응성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어머니가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하위요인인 대인 적응성과 인기도 및 지도력이 낮게 나타난다고 했다. 김준희(2010)는 아동의 온라인 게임 과몰입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어머니 변인을 도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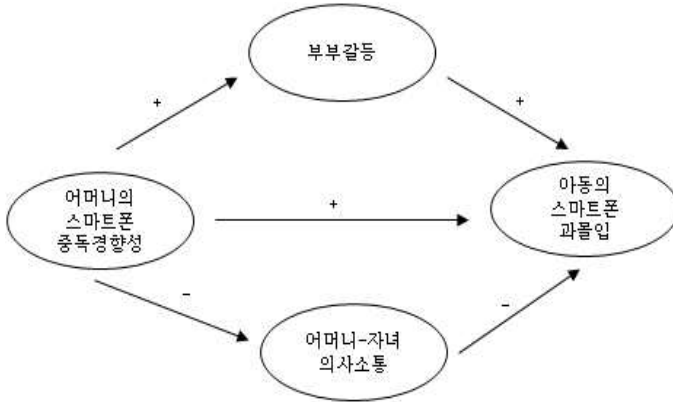
연구에서 부정적 의사소통, 방임적 양육태도, 민주적 양육태도가 유의미한 변인이며 이 가운데 부정적 의사소통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밝힌 바 있다.

#### 4. 부부갈등과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

모든 부부는 갈등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와 같은 자녀의 양육 시기에 부부간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갈등의 심각도가 점차 증가하여 초기 아동기부터 초기 청소년기에 극에 달한다고 한다(Belsky & Rovine, 1990). 부부갈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동들의 성장은 가족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선행 발달 단계에서 성취한 내적 자원의 힘에 크게 의존하며, 초기 관계에서 부모의 감정 이입적인 양육과 지지를 꾸준히 받아야 항상 사랑받는다는 느낌에 뿌리를 둔 기본적 신뢰감과 자아존중감을 가지기 때문이다(계정숙, 2002). 게다가 아동은 그들이 넓은 사회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주는 부모를 안전하고 믿을 만한 사회적 준거로 사용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일 이어지는 부모의 갈등은 아동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유지하는 능력을 위협한다. 갈등 상황에서 각 부모가 어린이에게 서로 대조적인 관점에서 선을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한 경우 부모들의 적의, 공포와 불신을 통해 의사소통이 되는 매우 모순적인 견해들에서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깊은 딜레마를 가진다. 누가 안전한가, 누가 위험한가, 누구를 믿을 수 있나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며 때로는 아동 자신의 환상이 상황에 투사되어 공포를 증가시킨다(김소향, 1995). 이처럼 가족 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며 적응 능력을 배우는 아동은 부모의 불화에 매우 민감하여 정서적으로 또는 적응 측면에서 피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안경희(2007)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부갈등으로 아동이 두려움을 느낄수록 인터넷 게임 중독이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정은(2004)은 주부의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부부의 의사소통은 원활치 않고 결혼 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하여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부부갈등을 야기하며 그로 인해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 행동과 적응 문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해준다.

주부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정도와 부부의 의사소통 및 결혼 만족도를 조사한 이정은(2005)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점수와 부부의 의사소통 및 결혼 만족도는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인터넷 중독경향성이 있는 어머니는 결혼 만족도가 낮아 부부갈등의 소지가 많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부재로 부부 관계를 비롯한 대인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에게서 발생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어머니의 중독경향성이 부부갈등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그림1> 참조)



[그림 1]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 관계에서 부부갈등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의 매개모형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 및 개인 의원을 방문하는 학령전 아동의 어머니 543명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신의 특성 뿐 아니라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행태에 대해 응답하였다. 연구의 주요 변인인 어머니의 연령 구성은 10대부터 50대(M=36.98, SD=4.20)에 걸쳐 있고, 30대가 372명(6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0대가 141명(25.9%)이며, 10대도 2명(0.4%)으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는 대학교 졸업이 207명(38.0%)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이 169명(31.2%), 전문대 졸업 혹은 대학교 중퇴가 135명(24.8%)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은 300만원~400만원이 165명(30.5%), 400~500만원이 152명(27.9%)으로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76.8%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연령은 2세부터 7세(M=5.64, SD=1.47)이며, 5세 144명(26.5%), 7세 141명(26.0%), 6세 126명(23.2%)으로 5~6세가 50%였다. 성별은 남 290명(53.4%), 여 253명(46.6%)이며, 스마트폰 소유 여부는 74명(13.7%)만이 보유하고 있었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다음 4가지 도구를 이용했으며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한주리와 허경호(2004)가 개발한 ‘한국형 이동전화 중독 척도’를 김지혜(2013)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했다. 본 도구는 병적 몰입 6 문항, 생활 장애 6문항, 통제 상실 6문항, 강박증상 7문항으로 총 25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0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지혜(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0.76~0.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81~0.86이다.

### 2)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이정순(1993)의 척도를 고유미(2009)가 연구에 맞게 수정한 것 가운데 어머니용 척도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식 척도로 매우 그렇다(4), 그렇다(3), 아니다(2), 전혀 아니다(1)로 응답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유미(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긍정적 의사소통, 부정적 의사소통은 각각 0.81, 0.7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91, 0.73이다.

### 3) 부부갈등

Straus(1979)의 Conflict tactics Scales(CTS)가 소개된 이후로 여인동(2001) 등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가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윤광미(2011)가 8요인 32문항으로 구성하고 5점 Likert 척도 방식을 적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윤광미(2011)의 연구에서 0.52~0.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74~0.90 이다.

### 4)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이 개발한 한국형 유·아동(만 5~9세) 인터넷 중독 관찰자 진단 척도를 이현주(2014)가 스마트폰에 맞도록 수정·보완했다. 본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과다사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현주(2014)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0.91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0.72~0.89 이다.



### 3. 분석 방법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통계량 산출 및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 및 왜도와 첨도를 구한 후 종속변수는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독립변수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으로, 매개변수는 부부 갈등 및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로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이때 최대 가능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방법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 그리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매개변인은 특성상 독립변인 및 반응변인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므로 경로분석을 시행하여 매개변인을 포함한 모형을 설정했다. 여러 개의 측정변인을 이용해서 취합된 공통 변인을 변수로 사용하여 측정 오류(measurement error)를 통제하고 산출된 모형 적합 통계량들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검증하고 평가했다. 최종 결정된 모형에 대해서 개별 모수에 대한 평가, Sobel test를 이용한 매개효과의 검증, 인과관계에 대해 해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 및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주요 변인들의 기초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 대상자의 주요 변인들에 대한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첨도 및 왜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주요 변인간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중복 경향성 함계	병적 몰입	생활 장애	통제 장애	상실 장애	강박 증상	과몰입 함계	일상생활 장애	금단	내성	부부갈등 함계	성격	생활습관 및 태도	의사소통	성생활	애정 및 친밀감	자녀관계	사택/ 취가관계	경제	의사소통 함계
중복경향성함계	1.00																		
병적몰입	0.88	1.00																	
생활장애	0.91	0.74	1.00																
통제상실	0.93	0.75	0.84	1.00															
강박증상	0.90	0.71	0.74	0.75	1.00														
과몰입함계	0.48	0.43	0.42	0.42	0.45	1.00													
일상생활장애	0.43	0.40	0.37	0.37	0.40	0.95	1.00												
금단	0.45	0.40	0.39	0.39	0.43	0.96	0.90	1.00											
내성	0.45	0.37	0.41	0.41	0.42	0.88	0.76	0.80	1.00										
부부갈등함계	0.39	0.39	0.35	0.35	0.32	0.39	0.38	0.36	0.39	1.00									
성격	0.36	0.36	0.33	0.34	0.29	0.33	0.31	0.31	0.34	0.85	1.00								
생활습관및 태도	0.27	0.28	0.25	0.24	0.23	0.36	0.36	0.32	0.33	0.69	0.50	1.00							
의사소통	0.33	0.33	0.30	0.29	0.26	0.31	0.28	0.28	0.32	0.92	0.78	0.55	1.00						
성생활	0.37	0.33	0.35	0.32	0.33	0.31	0.29	0.28	0.29	0.78	0.56	0.57	0.64	1.00					
애정 및 친밀감	0.30	0.30	0.27	0.27	0.25	0.30	0.28	0.27	0.29	0.90	0.71	0.55	0.83	0.69	1.00				
자녀관계	0.28	0.29	0.26	0.26	0.23	0.35	0.32	0.32	0.37	0.81	0.69	0.57	0.74	0.55	0.66	1.00			
사택/취가 3관계	0.32	0.35	0.29	0.27	0.26	0.35	0.35	0.33	0.32	0.74	0.59	0.44	0.60	0.52	0.61	0.52	1.00		
경제	0.26	0.29	0.22	0.22	0.23	0.30	0.30	0.27	0.26	0.67	0.50	0.48	0.56	0.47	0.56	0.46	0.53	1.00	
의사소통함계	-0.27	-0.27	-0.27	-0.25	-0.19	-0.36	-0.37	-0.33	-0.32	-0.36	-0.28	-0.28	-0.34	-0.28	-0.31	-0.29	-0.27	-0.28	1.00
평균	2.03	1.82	1.88	2.27	2.12	1.64	1.52	1.61	1.81	2.05	2.25	1.64	2.24	1.91	2.12	2.23	1.82	1.90	3.91
표준편차	0.67	0.70	0.70	0.80	0.78	0.56	0.56	0.59	0.63	0.69	0.82	0.76	0.82	0.85	0.91	0.87	0.77	0.94	0.68
첨도	0.51	0.97	0.59	0.29	0.47	0.60	0.80	0.70	0.23	0.64	0.53	1.31	0.50	0.79	0.72	0.62	0.86	1.05	-0.53
왜도	-0.11	0.69	-0.33	-0.58	-0.40	-0.62	-0.49	-0.36	-1.03	0.21	-0.19	1.49	-0.03	0.07	0.09	0.05	0.18	0.66	0.09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함.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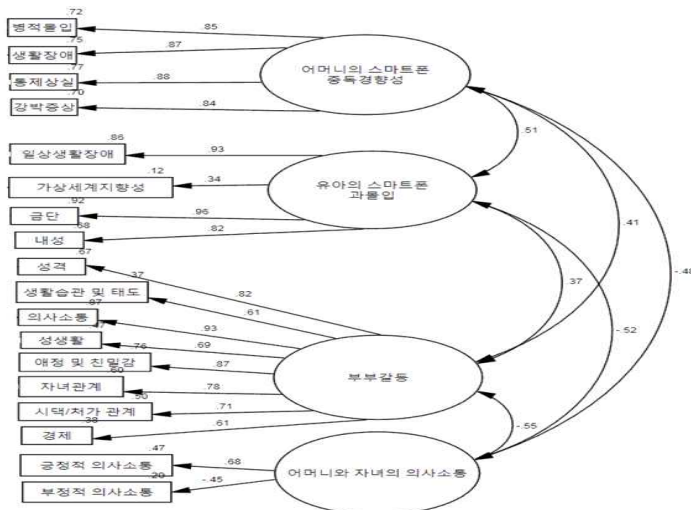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은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r=0.48, p<0.01$ )을, 부부갈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r=0.39, p<0.01$ )을,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 $r=-0.27, p<0.01$ )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부부갈등은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r=0.39, p<0.01$ )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은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 $r=-0.36, p<0.01$ )을 나타내었다.

또한, 측정변인들에 대한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Kline, 2005). 왜도는 그 절대값이 3.0보다 큰 경우에 극단적인 값이라고 보고 있으며 (Chou & Bentler, 1995), 첨도는 절대값이 10.0보다 큰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Kline, 2005). 위 자료에서는 앞에서 말한 기준보다 큰 경우가 없으므로 측정변인들의 다변량 정규성이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 2. 측정변수 간 확인적 요인분석

### 1) 연구모형 적합도 분석

먼저, 구조모형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부부갈등,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의 측정 변수와 하위변수의 상관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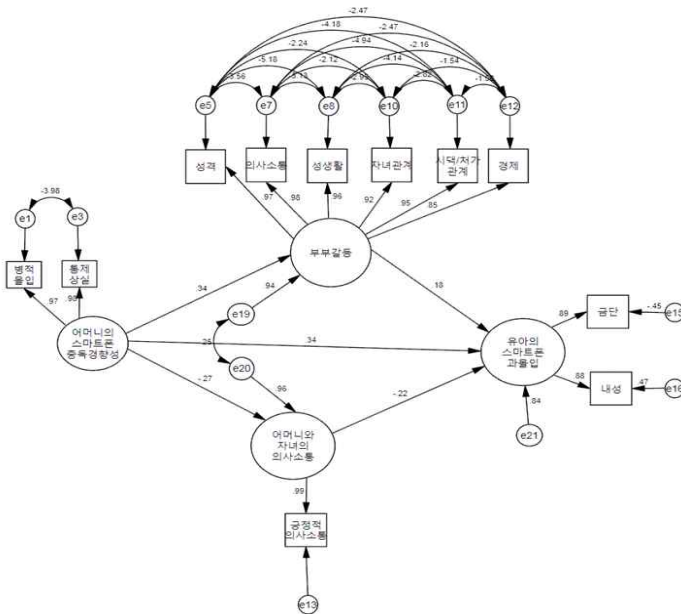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변수간 확인적 요인 분석

위에서 분석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의 적합도 통계량 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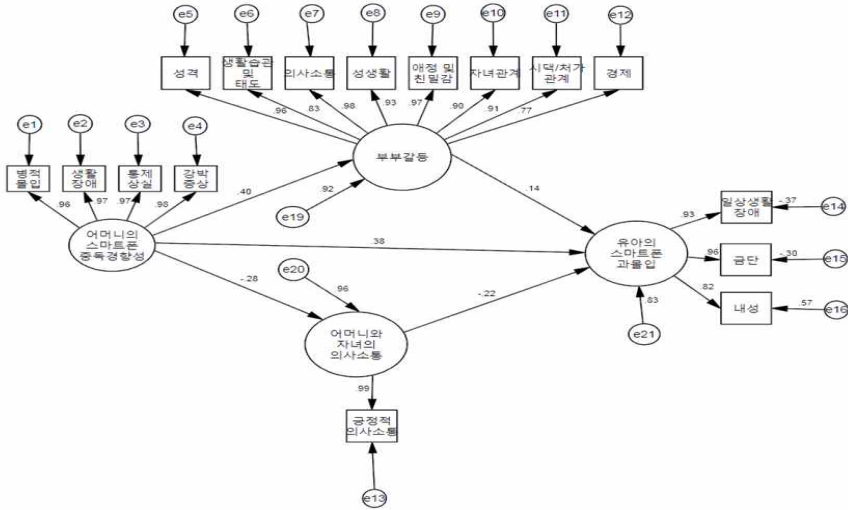
$\chi^2$	DF	GFI	CFI	SRMR	RMSEA
166.63	108	0.97	0.99	0.05	0.03

일반적으로  $\chi^2/DF$ 는 2이하, GFI와 CFI는 0.9이상, SRMR와 RMSEA는 0.07이하이면 비교적 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이 기준에서 보았을 때 지금 나온 통계량 값들은 모두 위의 기준을 만족하므로 위 모형이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 단계를 바로 진행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0.34~0.96로 나타났으며, 요인부하량의 절대값이 0.5 이하인 값이 있으므로 해당 요인들을 제외한 후 각각의 하위변수를 구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구성한 잠정모형 1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잠정모형 1

우선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ondition number를 구해보았다. Condition number가 30이 넘는다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데(Belsley & David, 1991.) 위 모형에서는 72.1의 값을 가지므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아래 [그림 4]와 같은 잠정모형 2를 설정하였다.



[그림 4] 잠정모형 2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부모갈등,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 관계에 대한 잠정모형 2를 분석한 결과, 잠정모형의 적합도 통계량 들은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잠정모형의 적합도 통계량

$\chi^2$	DF	GFI	CFI	SRMR	RMSEA
58.94	35	0.98	0.99	0.02	0.04

일반적으로  $\chi^2/DF$ 는 2이하, GFI와 CFI는 0.9이상, SRMR와 RMSEA는 0.07이하이면 비교적 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한다. 이 기준에서 보았을 때 지금 나온 통계량 값들은 모두 위의 기준을 만족하므로 위 구조방정식 모형(Default Model)이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ondition number를 구한 결과 위 모형에서는 26.49의 값을 가지므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음 <그림4>같은 모형을 추정했다.

## 2)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는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계수	S.E.	표준화 계수	t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 부부갈등	0.33	0.03	0.34	10.05**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	-0.47	0.07	-0.27	-6.82**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0.18	0.02	0.34	8.21**
부부갈등 ->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0.10	0.02	0.18	5.07**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 ->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	-0.07	0.01	-0.22	-5.19**

\*\*p<0.01

먼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부부갈등의 표준화 계수는 0.34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강할수록 부부갈등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의 표준화계수는 -0.27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강할수록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의 표준화 계수는 0.34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증가할수록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과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의 표준화 계수는 0.18로 부부갈등이 증가할수록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의 표준화계수는 -0.22로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이 증가할수록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매개효과 검증

위에서 살펴본 변인들에 대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5> 구조모형 경로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Sobel' s Z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 부부갈등 ->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	4.14**
어머니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어머니-자녀 의사소통->아동 스마트폰 과몰입	4.42**

Sobel 검증 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부부갈등을 거쳐 학령전 아동의 스

마트폰 과몰입으로 가는 경로의 Sobel의 Z값이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을 거쳐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가는 경로의 Sobel의 Z값이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경로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방정식 모형과 Sobel 검증을 토대로 각 변인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커질수록 유아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직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는 부부갈등,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이며, 이 매개변수들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받으며,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다시 해석하면 직접적으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높아지면,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이 높아지고, 간접적으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높아지면 부부갈등은 높아지고,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은 낮아진다. 이 매개변수 들이 다시 학령 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 V. 논의 및 결론

스마트폰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본 연구는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을 심화시키는 요인을 밝히고,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 나이는 평균 36.9세(최소 19세, 최대 54세)였으며, 어머니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중독경향성이 감소하며, 교육 정도가 높아질수록 중독경향성이 증가하지만 대학원 이상의 학력 군에서는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가구의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향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영은(2013)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30대가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2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증가할수록 고위험 군이 증가하며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등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본 연구는 학령전 아동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전 연령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타 연구들과 유사하게 30대 어머니에게서 높은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시사되며, 학력과 소득 면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중독경향성의 하위요인에 대한 결과를 보면 통제 상실이 가장 높으며 강박 증상, 생활 장애, 병적 몰입의 순으로 나타나, 영·유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김지혜(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다. 이는 학령전 아동을 둔 어머니들이 24시간 자녀에게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외부와의 소통의 창구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 관련 최신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독경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을 시사한다. 중독경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30대 어머니의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의 따뜻한 돌봄이 필요한 학령전 아동들이다. 이 시기는 모방을 통해 배우며, 어머니로부터 공감 능력과 감정을 조절하는 요령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디지털 기기에 빠져 이런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학령전 아동의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과 그 매개 변인에 대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예방 및 개입, 대처 방법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 어머니의 자녀인 학령전 아동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74명(13.7%) 만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더 과몰입 경향을 보였으며 나이가 증가할수록 과몰입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컴퓨터 게임 행동에 관한 경규인(2008)과 이혜숙(2010)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방효국(2013)도 유·아동의 게임 중독 연구에서 남아가 중독 경향이 더 높으며 그 이유는 게임의 내용이 활동적이고 폭력적이어서 남아에게 더 선호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는 성인 대상 연구에서 여성은 SNS 등 소통을 위해, 남성은 게임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학령전 아동들과 성인의 성별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의 양상이 유사함을 시사한다.

연구대상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의 하위요인 별로 그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내성이 가장 높고, 금단,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제철(2014)의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장애가 가장 높았고 내성, 금단, 가상세계 지향성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며, 강인성(201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년이 높을수록 가상세계 지향성, 금단, 내성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스마트폰 몰입의 증상이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연령에 따른 몰입 또는 중독의 현상이 다르므로 초등학생 또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연구에 치중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학령전 아동의 디지털 기기 과다사용에 대한 연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 부부갈등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먼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박찬옥, 조형숙과 김민정(2007)은 어머니의 전자미디어 이용 시간이 짧을수록 자녀의 이용에 보다 민감하고, 어머니의 사용 시간이 길수록 자녀들은 보다 독립적으로 긴 시간 이용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하거나 걱정을 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박선영(2005)는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여과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여 자녀를 디지털 기기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먼저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스마트폰의 역기능에 대한 이해와 폐해 및 심각성을 상기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부부갈등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박용민(2011)은 스마트폰 중독 현상으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다보니 가족이나 연인, 부부 사이에서의 대화보다 각자의 세계에 폭 빠져있어 자연스레 대화가 줄어들며, 배우자가 스마트폰에 빠져있어 ‘스마트폰 과부·홀아비’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인 병적 몰입, 생활 장애, 통제 상실, 강박증상의 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부부갈등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성격과 의사소통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관계, 애정 및 친밀감, 성생활, 경제, 시대/처가관계의 순으로 나타나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부부 관계에서의 애정, 성적 관심, 서로의 생각과 가치에 대한 공유를 저해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변화순(1988), 권오실(1995) 등이 갈등 요인을 친척문제, 의사소통 문제, 경제적 문제, 성문제 외에 역할문제, 자녀문제, 건강문제, 취미 및 여가문제, 부부의 사회적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많은 갈등 요인 중 연구자들이 제시한 ‘성격과 습관의 차이’ 나 ‘취미 및 여가문제’ 중 상당한 부분이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부부갈등이 증가할수록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도 증가하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변명선(2014)도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존감과 자기 통제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으며, 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아직 부부 갈등과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간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문 실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유의미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런 현상을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이민석(2011)은 외부로 투사되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하는 자기감시(self monitoring), 5가지 소비가치(Functional value, Social value, Emotional value, Epistemic value, Conditional value)로 표현되는 스마트폰 특성 및 외로움을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이들의 수치가 높을수록 중독현상이 증가하고 사회적 위축현상이 심화되는 등 대인 관계의 소통이 어려워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긍정적인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 간에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드

러냈다. 이어리와 이강이(2012)도 초등학생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 요인 중 부모 자녀 간의 문제형 의사소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김중기(2012)의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이 역기능일수록 유의미한 인터넷 게임 중독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영(2014)은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중 부정적 의사소통이 유아 스마트폰 중독 전체 및 하위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 하위 요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자녀 간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과몰입 현상과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할 뿐이었다. 아동이 어릴수록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상기할 때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 못지않게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더 많은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과의 관계에서 부부갈등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은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때 부부갈등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부부갈등을 거쳐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가는 경로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높아지면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병완(2014)의 연구에서도 부부 공감은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한가희(2013)도 공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밝힌 바 있으며 김은희(2015)는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은 부부간의 심리적 친밀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안경희(2007)는 부모간의 갈등에서 위협을 지각할수록 아동의 인터넷 게임사용이 높고 게임으로 인해 학업 태도가 저하되고 부정적 정서 경험이 증가하는 등, 부부갈등은 아동의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했다.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부부갈등을 야기하며 그로 인해 아동이 스마트폰에 과몰입하게 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끄는 충족되지 못한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가정에서 부모가 충족시켜주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개입하는데 아동 개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가정과 연계하여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어머니-자녀의 의사소통을 거쳐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가는 경로도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긍정적인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이에 따라 아동이 스마트폰에 과몰입하게 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박용민(2011)은 스마트폰 중독자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을 손에서 놓지 못하다보니 자연스레 대화가 줄고 각자의 세계에 폭 빠져있어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단절된다고 했다. 이렇게 사회적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소통이 단절되어 부부갈등도 야기되지만 더 큰 문제점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안상희(2013)와 정재원(2006)도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에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의사소통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면서 가정 내의 대화 패턴이 평등적·애정적으로 이뤄져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커질수록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은 부부갈등,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이며, 이 매개변인들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받는 한편,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접적으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높아지면,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이 높아지고, 간접적으로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높아지면 부부갈등은 높아지고,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은 낮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매개변인들은 다시 학령전 아동의 스마트폰 과몰입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학령전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서 종속변인인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따라, 또한 양육 환경에 따라 어머니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와 더불어, 심층적 면접, 상담을 통한 질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종속변인인 학령전 아동에게서 직접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한 편향된 결과를 예측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관한 연구로서 컴퓨터와 휴대폰의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폰 특성에 관한 학문적 연구 결과가 미흡하여 인터넷 중독 척도를 보완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스마트폰 과다사용 측정도구에 스마트폰의 특성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개념화 및 진단도구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가 가지는 시사점과 의의는 우선 주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및 대학생 대상 연구로 진행되었던 스마트폰 과몰입에 대한 연구를 학령전 아동 대상으로 확장시켰으며, 둘째,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했을 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셋째,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이 부부갈등과 어머니-자녀 의사소통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주는 경로를 밝혀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이를 이용한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 강경두(2013).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운동효과: 심리·뇌 활성화 분석.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강인성(2014).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정보대학원.
- 강주연(2012).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충동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
- 경규인(2008). 유아의 컴퓨터 게임 행동과 환경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계정숙(2003). 부부 갈등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 고유미(2009).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과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 권오실(1995). 부부간의 갈등 정도와 갈등 관리 방법과의 관계분석: 학동기 이전 자녀를 둔 부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 금창민(2013). 중·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proneness)'과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 김미영(2014). 어머니의 양육행동, 의사소통과 유아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
- 김소향(1995). 부부 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승옥, 이경옥(2007). 아동의 인터넷 게임 중독 및 과몰입의 개념적 이해. **어린이미디어연구회**, 6(2), 63-83.
- 김영은(2013). 영아기 자녀를 둔 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자기 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은희(2015).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이 부부친밀도와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재수(2004). 21세기 디지털문명과 패러다임슈프트.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1, 179-186.
- 김종기(2012).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

위논문,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 김지혜(2013).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스마트폰중독 경향성, 양육태도,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동아일보(2017.01.13.). 세 살 꼬마까지 스마트폰 중독.
- 매일경제(2015.10.16). '디지털 치매' 예방법.
- 미래창조과학부(2015.12.31.). 201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발표.
- 박용민(2011).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 박찬욱, 조형숙, 김민정(2007). 자녀의 전자미디어 이용과 그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개입의 차이. **한국교육문제연구**, 25(2), 1-20.
- 방효국(2013). 만5세 유아의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변명선(2014).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개인·가족·학교변인의 영향: 주의사용자군·위험사용자군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변화순(1988). 판례에 나타난 이혼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분석. **한국사회학회사회학 대회논문집**, 1988.6, 23-25.
- 송봉, 이종호, 정병무(2014). 스마트폰 게임 특성이 몰입, 이용자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 연구**, 15(1), 277-296.
- 신의진(2013). **디지털 세상이 아이를 아프게 한다**. 서울: 북클라우드. (pp.69-70, 81).
- 안경희(2007). 초등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부모갈등 변인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안상희(2013). 어머니 양육태도 및 어머니 자녀 의사소통이 유아의 게임 과몰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 유구중(2012). 유아교육기관 스마트폰, 태블릿 PC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유아의 과학적 사고에 미치는 효과. **열린유아교육**, 17(3), 85-110.
- 윤영숙(2013).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관내 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 이나미(2014). **다음인간**. 서울: 시공사.
- 이민석(2010).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성현(2012). 유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부모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대학원.
- 이어리, 이강이(2012). 부모요인, 친구요인, 심리적요인이 초등학생의 중독적인 휴대전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1(2), 27-39.
- 이정순(1993).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아동 우울에 관한 연구: 아동기 자녀를 중심

- 으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제철(2014).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 이현아, 이기영(2004). 주부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 **한국생활과학회지**, 13(3), 329-343.
- 이혜숙(2010). 유아의 게임 몰입성과 유아의 정신건강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임선진, 김진훈, 장동원, 정은기, 윤해주, 김의정(2006). 성인 인터넷 중독자의 기질 특성. **정신신경의학**, 45(6), 567-570.
- 정병완(2014). 30-40대 기혼남녀의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부부 공감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정아란(2007). 유아의 컴퓨터게임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정아란, 엄기영(2006). 유아의 컴퓨터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 프로그램 모형개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6(2), 211-237.
- 정아란, 엄기영(2006). 만5세 유아의 컴퓨터게임 이용실태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89-114.
- 정정화(200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 또래 관계의 질 및 학교적응도와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준오, 강신영(2008). 유아 인터넷 및 온라인 게임 사용 실태 조사. **幼兒教育論議**, 17(1), 25-42.
- 채유경(2006). 초등학생 게임 과몰입에 관한 통합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7(3), 885-898.
- 통계청(2010).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스마트폰중독 진단결과.
- 한국정보문화센터(2000). 2000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인식조사.
- 한가희(2013). 남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대인 관계: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한겨레신문(2014.01.02). 내 아기도 스마트폰 중독?(평균 2살부터 하루 30분씩 사용).
- 한겨레신문(2014.05.19). 밥 먹자면서 SNS만 하는데....“공감의 핵심은 ‘접속’이 아니라 ‘접촉”
- 한겨레신문(2015.11.09). ‘사이버 폭력’ 피해자 10명중 3명 “아무 대처 안했어요”
-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 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 한상연, 마은정, 최수건, 홍대순(2011). 스마트폰 사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 **정보와 사회**, 20(1), 49-84.

- Belsley, David (1991). *Conditioning diagnostics: Collinearity and weak data in regression*. New York: Wiley.
- Chou, C.-P., & Bentler, P. M. (1995). *Estimates and tes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 Goldberg, I. (1995). Internet addiction disorder(IAD)-Diagnostic criteria. Retrieved June 10, 2012 from <http://www-usr.rider.edu/~suler/psycyber/supportgp.html>
- Kline, R.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acLean P.(1990). *The triune brain in evolution: role in paleocerebral functions*. New York: Plenum
- Straus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David J. Wallin (2010). Attachment in Psychotherapy. 김진숙, 이지연, 윤숙경 공역. 애착과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원서출판 2007)

\* 논문접수 2017년 5월 8일 / 1차 심사 2017년 6월 9일 / 게재승인 2017년 6월 25일

\* 김인숙: 용문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아동청소년전공)을 수업 중이다.

\* E-mail: kiss54@hanmail.net

\* 김도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아동청소년 전공으로 심리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용문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 'K-WISC-IV의 이해와 실제(2015)', '영유아 정신병리 핸드북(2010)', 'ADHD주의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Vol.1-3(2009)', '모래놀이 치료 핸드북(2009)' 등이 있다

\* E-mail: dykimyscho@hanmail.net

Abstract

## The Effects of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on Smartphone Overindulgence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mong Preschool Childre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Conflicts and Mother-child Communication\*

Kim, In Sook\*\*

Kim, Doh 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of mother, smartphone overindulgence of preschool children and mediating variables such as marital conflicts and mother-child communication.

Five hundred and forty three preschooler's mother residing in Seoul city or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city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tructural model was verified by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rrelation analyses showed that the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of mother and the smartphone overindulgence of preschool children had sta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one another. Second, on the one hand the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and the marital conflicts variable demonstrated th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one another, on the other hand statistically negative correlations showed between the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and the mother-child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Meanwhile, it was found that the marital conflicts and mother-child communication variable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other's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and the smartphone overindulgence of preschool children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smartphone overindulgence of preschool childr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the desirable role of mother to prevent smartphone overindulgence of preschool children. Also It suggest a need for variety further research which targets preschool children and sound attitude of maternal using smartphone.

Key words: Mother, Children,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Overindulgence

---

\* This work was the revision of the author's dissertation of Master(2015).

\*\* First author: Doctoral student,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ling Psycholog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the head of child and youth, Counselling Psychology,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ling Psychology